



대전시민 가족돌봄 휴가·휴직 유급 지원 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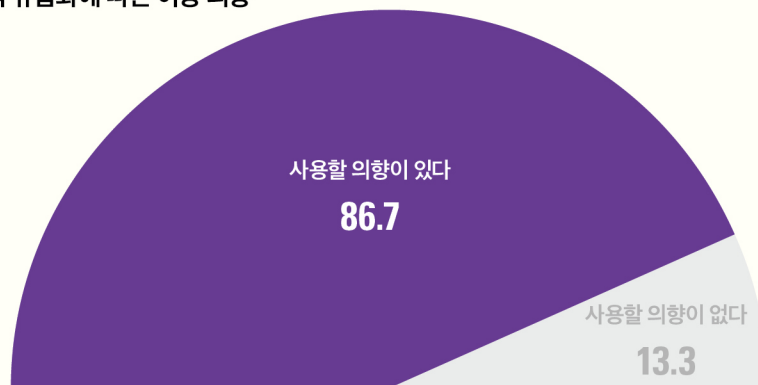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로 인해 노인 또는 부모 돌봄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근로자가 사용하는 휴직, 휴가 제도로 지속적으로 변해왔다. 200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가족돌봄휴직이 도입되었고, 2019년 가족돌봄 개념이 확대 개편되면서 가족돌봄휴가, 근로시간단축까지 제도화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수행한 『대전시민의 일·생활 균형 현황과 정책지원 방안』 조사 결과의 일부를 살펴봄으로써 대전시 가족돌봄 제도의 현황과 정책 수요를 짚어보고자 한다.

**“가족돌봄 휴가·
휴직 유급 보장
된다면 사용하겠다”
여성 87.7%,
남성 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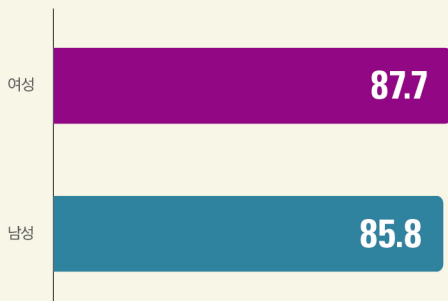
현재 무급으로 운영되는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을 유급화한다면 86.7%가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이 87.7%로 남성(85.8%)보다 사용할 의향이 높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92.3%로 사용할 의향이 가장 높고, 이어서 30대(91.1%), 40대(84.9%), 50대(80.8%) 순이다. 여성과 남성, 2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80% 이상이 ‘유급화에 따른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휴가나 휴직 제도를 유급으로 보장할 경우,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유급화에 따른 이용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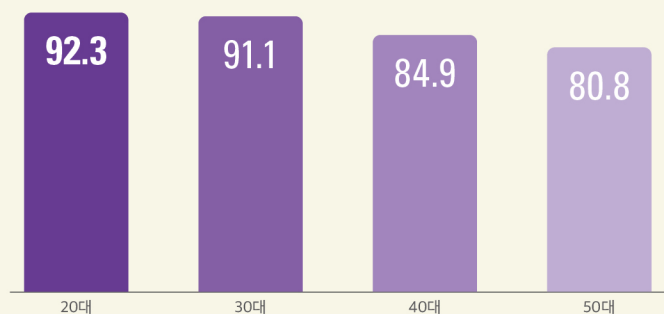
단위: %



성별



세대별



·경제활동을 하는 자(465명)에 한하여 분석함

·자료: 류유선(2025), 『대전시민의 일·생활 균형 현황과 정책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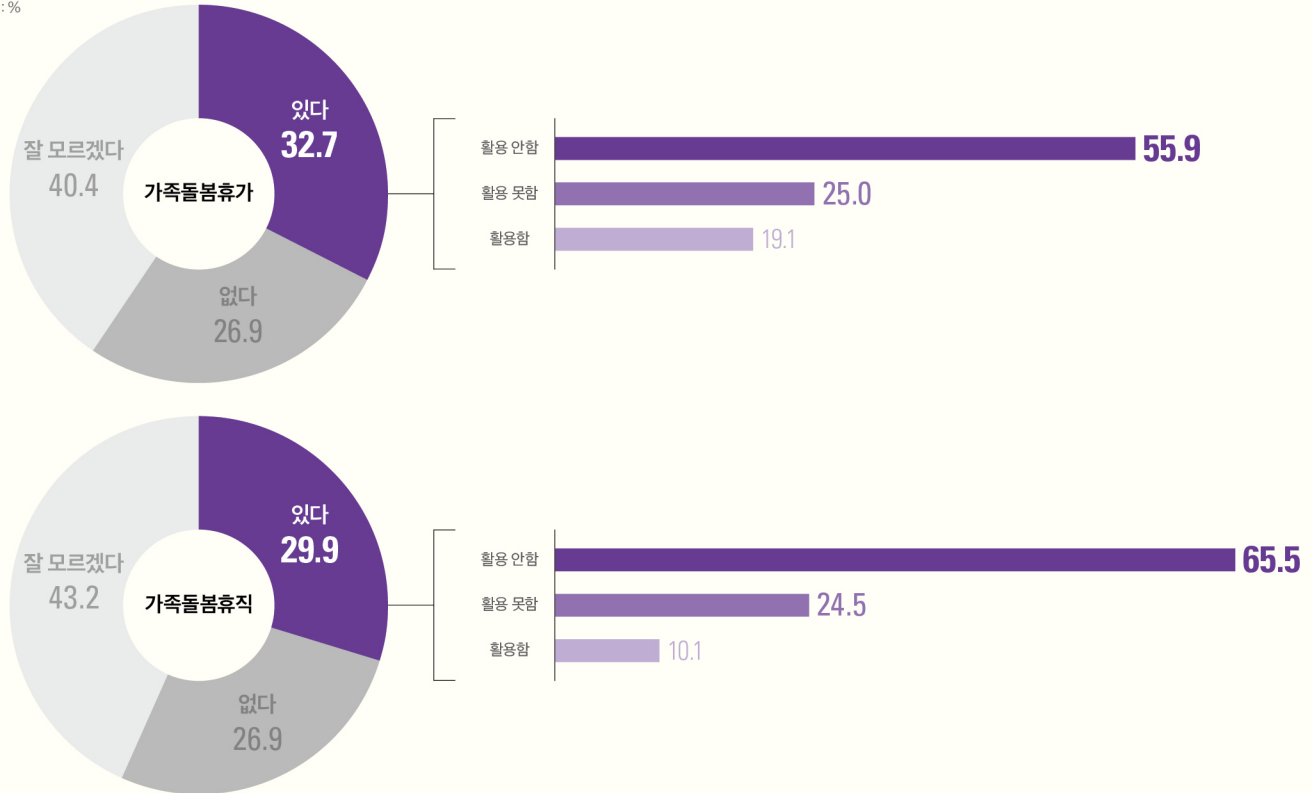
-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무급으로 연간 최장 10일을 사용할 수 있음
- ♣가족돌봄휴직: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무급으로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음

근로자의 25% 내외, 가족돌봄 휴가·휴직 활용 못해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의 유무와 제도 활용 비율을 살펴보면, 휴직보다 휴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7%였으며, 이 가운데 19.1%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25.0%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29.9%가 제도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가족돌봄휴가(32.7%)보다 2.8%p 낮다. 또한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하는 비율이 10.1%로 가족돌봄휴가(19.1%)보다 낮다. 한편, 근무하는 곳에 제도가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두 제도 모두 약 40%로 높은 편이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제도 유무와 활용

단위: %



·경제활동을 하는 자(465명)에 한하여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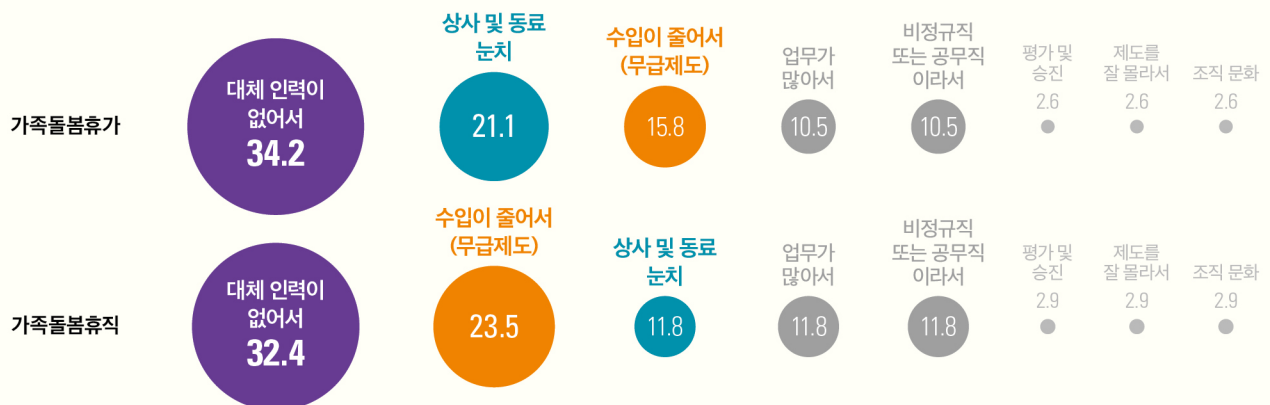
·자료: 류유선(2025), 『대전시민의 일·생활 균형 현황과 정책지원 방안』

휴가와 휴직을 왜 못쓸까? “대체 인력 없어서”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활용 못하는 이유를 질문했다. 두 제도 모두 ‘대체 인력이 없어서’(휴가 34.2%, 휴직 32.4%)가 가장 컸다. 하지만 2순위에서는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상사 및 동료 눈치’(21.1%)이고, 가족돌봄휴직은 ‘수입이 줄어서’(23.5%)로 차이를 보였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제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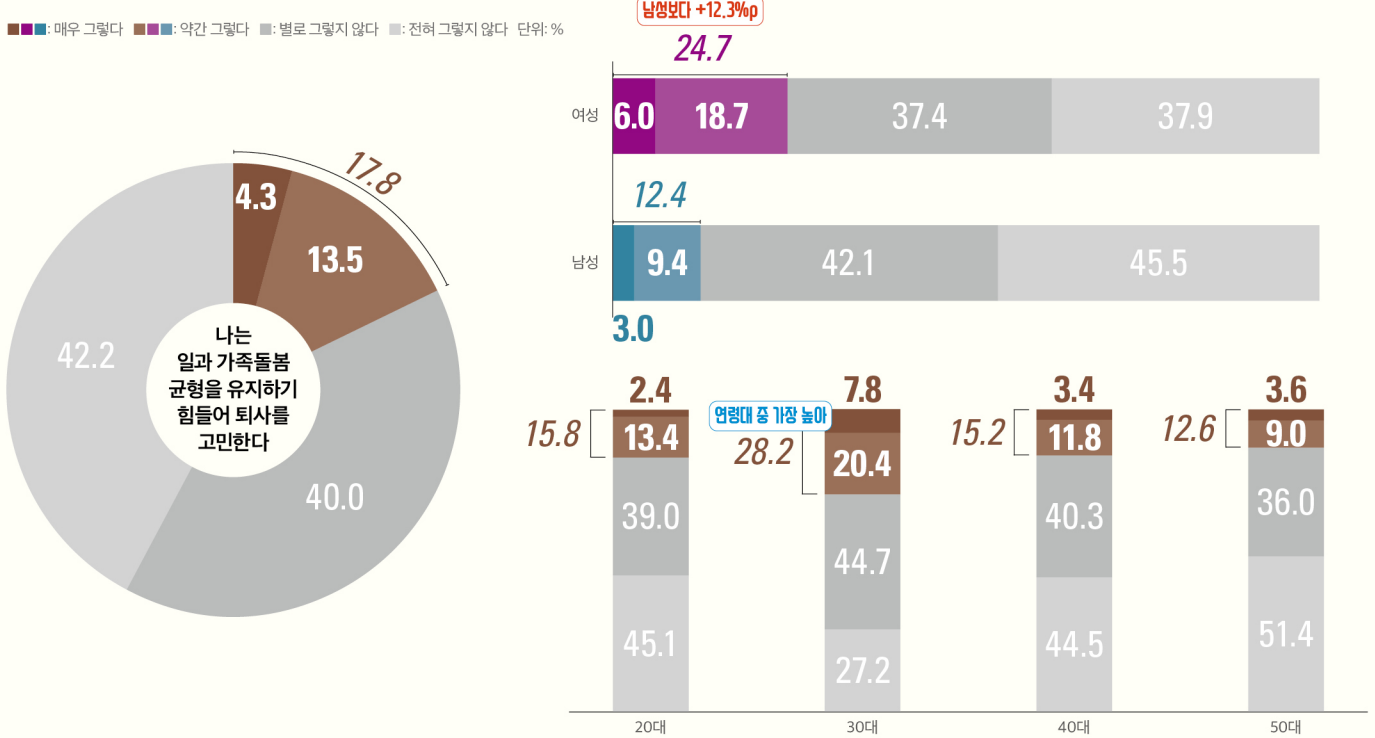
·제도의 활용 여부에 ‘활용 못함’으로 답한 응답자에 한하여 분석함

·자료: 류유선(2025), 『대전시민의 일·생활 균형 현황과 정책지원 방안』

17.8%, “일과 가족 돌봄 균형 유지 힘들어 퇴사 고민돼”

‘나는 일과 가족돌봄 균형을 유지하기 힘들어 퇴사를 고민한다’라고 질문한 결과, ‘약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7.8%로 나타났다.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제활동 지속 고충 정도는 성별과 연령대에서 차이를 보였다. ‘약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여성은 24.7%, 남성은 12.4%로 여성이 남성보다 12.3%p 높다. 연령대로 보면, 30대(28.2%)가 가장 높고, 50대가 12.6%로 가장 낮다.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제활동 지속 고충 정도



· 가족돌봄으로 인한 고충 정도에 '해당없음' 응답자를 제외한 분석임

일과 가족돌봄 균형 고충↑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일과 가족돌봄의 균형을 유지하기 힘들어 퇴사를 고민할 정도의 고충이 큰 집단일수록 배우자와 자녀, 부모와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나타났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는 전혀 고충이 없는 집단에서 3.26점이고, 매우 고충이 있는 집단에서 2.81점으로 그 차이가 컸다.

일과 가족돌봄 균형 고충 정도에 따른 집단 간의 가족 관계 만족도

단위: 점



· 평균 점수는 4점 기준임(1점:매우 불만족 - 4점:매우 만족)

· ‘일과 가족돌봄 균형을 유지하기 힘들어 퇴사를 고민한다’의 고충 정도를 기준으로 함

· 경제활동을 하는 자(465명)에 한하여 해당 상황에 ‘해당없음’ 응답자를 제외한 분석임

· 자료: 류유선(2025), 『대전시민의 일·생활 균형 현황과 정책지원 방안』